

신성성(神聖性)과 젠더, 그리고 민족

- 김동리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은주*

차례

1. 종교와 젠더적 배치의 문제
2. 무속과 여성, 전통의 표상
3. 기독교와 남성, 세계성의 전유
4. 민족이라는 성소(聖所)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소설사에서 드물게 종교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서사화했던 김동리의 소설을 대상으로, 신성성의 문제와 젠더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는 균열을 일으키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무속 계열과 기독교 계열의 소설로 대별하여 비교·대조함으로써, 개별 작품론으로 한정되거나 전자에 치중되었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종교의 영역을 소설화했던 김동리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했다.

김동리는 무속계열의 소설에서 이성주의에 반하는 샤머니즘의 초월성과 그것을 체현하는 여성 인물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반면, 기독교 계열의 소설에서는 이적(異蹟)과 신성성의 세계를 회의를 남성 주체, 즉 인간 중심의 합리주의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옹호한다. 이러한 의식의 균열은 민족, 혹은 국가라는 차원의 규범이 보다 상위에서 김동리의 의식을 규율하고 있기

* 연세대 국문과 BK사업단 연구교수

때문에 결과한 것으로 보인다. 범신론적인 자연귀의 사상과 함께 초자연적인 주술성이 공존하는 무속의 세계는, 그것이 전통이고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옹호된다. 이와 달리 기독교는 ‘세계 종교’라는 권위 아래 신성성의 세례를 펼치지만, 그것이 지닌 외래성과 배타성이 전통을 잠식해 가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동리에 게는 민족이 바로 종교 그 자체였던 셈이다.

핵심어 : 종교, 신성성, 젠더, 무속, 기독교, 민족, 전통, 보편성, 세계성

1. 종교와 젠더적 배치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서사화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유서 깊은 방식은 역시 ‘성(聖)’과 ‘속(俗)’의 대립을 부각시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원리와 문화적 전통이 지배하는 이질적 종교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성’과 ‘속’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죽음이나 욕망과 같은 인간 본연의 속성을 일종의 한계상황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한계성을 초월할 수 있는 구원으로서의 종교의 세계가 궁극의 도달점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이 유구한 이분법이야말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한데, 인간 존재의 자연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욕망이 결국 초자연성의 은유로서 ‘신성(神性)’을 창조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성’이란, 한계상황으로 규정되는 인간 존재의 결여를 환기하면서 동시에 보충하는 중층적 개념으로 구성된다. 최근 “만들어진 신”이라는 독신(瀆神)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간 욕망의 무한성과 폭력성이 그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¹⁾ 이렇게 본다면 서사문학의 표면에 내걸린 ‘성과 속’이라는 갈등 구조는 결국 인간 욕망이 심화·확장된 버전에 다름 아니다. ‘욕망

으로부터의 자유'가 보편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이러한 형국은 아
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속에서 성장한 이
질적인 종교들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경우는, 그것이 인종과 민족, 계급이
나 성별 등과 같은 첨예한 대립각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적
차원을 함축하게 된다. 여기에도 서로의 신성성이 경쟁하고 대결하는 양
상이 부가되고, 은연중에 선택과 배제의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결국 종교
적 선호의 문제는 복합적인 차원의 차별적 시선을 야기하게 된다. 요컨
대 종교의 차원을 서사화하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은 현실 세계
속에서 종교로 야기되는 문제적 지점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인간 욕망의
무한성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서로 다른 발현태를 갖는 타자 속에
서 자신의 욕망과 동일한 것을 발견했을 때의 당혹감을 투영하고 있다.

근대 이후의 한국문학에서 종교적 소재를 광범위하게 서사화하고 있
는 대표적인 작가로 김동리를 꼽을 수 있다. 광의의 차원에서 종교문학
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한국문학에서 이 범주는 그리 주목할 작가나 작
품을 가지지 못했다고 볼 때, 김동리의 문학은 그 존재 의미가 남다르다.
대개의 종교문학이 특정 종교에 국한하여 다뤄지고 있는데 반해, 김동리
의 문학에서는 무속, 화랑도 등의 토착 사상은 물론이고 '보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영역을 대
상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작가의
문제의식을 가장 집중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영역은 역시 무속과 기독교
이다. 김동리가 왜 이 두 종교에 집중했는지는 논의 과정에서 언급될 것
이다. 아무튼 김동리의 소설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종교를 대상으로 하
는 두 가지의 전형적인 서사화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1) 도킨스는 생명의 진화를 탐구하는 과학자로서 '열의에 찬' 종교의 비합리성이 인간
삶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Richard Dawkins, 『만들
어진 신』, 이한음 옮김, 김영사, 2007, 22~47쪽.

예는, 기독교의 성서 이야기를 공간과 인물 구성에서 전면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마리아의 회태」(1955), 「목공 요셉」(1957), 「부활」(1962)과 장편 『사반의 십자가』(1955~56) 등의 소설로, 예수와 그 주변의 인물들을 대립적으로 형상화하여 천상적 세계와 지상적 세계의 이항 대립적 가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후자의 예는, 무속과 기독교를 갈등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무녀도」(1936), 『을화』(1978)의 경우로, 전통적 세계와 외래적 세계의 충돌, 혹은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갈등이라는 이항대립적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동리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후자 계열의 작품을 부각시켜 왔다. 대표작 「무녀도」등에서 전통 무속과 서구 기독교의 대립을 서사화하여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구화 및 근대화에 대한 부정의식을 전면화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지향성을 김동리 문학의 요체로 강조해 왔던 것이다. 이는 「무녀도」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하여 “동양정신의 한 상징으로서 취한 ‘모화’의 성격은 표면으로는 서양정신의 한 대표로서 취한 예수교에 패배함이 되나 다시 그 본질적 세계에 있어 悠久한 승리를 갖게 된다는 것”²⁾이라고 말한 김동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김동리의 문학이 지닌 전통지향성을 둘러싸고 그것이 전근대에 가까운지 혹은 탈근대를 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김동리의 문학에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반근대주의는 낭만적 세계 인식에 기반한 유희주의에 가까운 것이며 역설적인 의미에서 가장 근대적인 미적 태도의 하나라는 견해와,³⁾ “김동리가 그려내려 했던 무당 모화는, 인습에 사로잡힌 무지한 동양이라는 오리엔탈리즘에 맞서 주체의 절대성을 확신하는, 역설적으로 근대적 주체로서의 삶에 투철한 한

2)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 ‘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1940.5, 92쪽.

3) 진정석, 「일체 말기 김동리 문학의 낭만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외국문학』, 1993 여름호, 174~177쪽.

국민의 초상”⁴⁾이라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⁵⁾

그런데 기독교의 성서와 관련한 전자 계열의 소설에서는 성서 이야기를 차용하여 그것을 서사의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지점은 ‘신의 서사’가 누락시키고 있는 틈에 존재하는 ‘인간의 서사’이다. 『마리아의 회태』에서는 신앙심이 강한 마리아조차도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 성령을 수태하게 된 데서 오는 고독을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약혼자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몸져누운 요셉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뿐만 아니라 『목공 요셉』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를 지켜보는 요셉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신의 세계’ 혹은 ‘신의 섭리’로 인해 상처받는 요셉의 인간적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기독교를 대하는 김동리의 의식은 그것의 이적 및 신성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기보다 인간으로서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혹은 그것을 둘러싼 인간 관계의 섬세한 내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점에서 전통 사상을 부각시킨 소설 계열과 함께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다룬 소설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김동리 연구가 답습하고 있는 이항대립의 구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김동리가 이러한 종교적 주제 차원을 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젠더적 관점에서 인물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당인 여성 인물과 기독교인 남성 인물 형상은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의 축자적 표상이며, 미개(야만)와 문명의 표상으로도 읽을 수 있다.⁶⁾ 사실 이러한 배치는 진부할 정도로 전형적인 것이지만, 김동

4) 김주현, 『1960년대 전통 인식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6, 94쪽.

5) 그 외에 한수영은 김동리의 미적 자율성 기획이 주체 중심의 이성애 다름 아니며, 본질적으로 근대적 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한수영, 『순수문학론에서의 미적 자율성과 반근대의 논리』,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238쪽)

6)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연에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겨져 온 반면, 남성은 ‘문화에 더 가까운’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초자연의 영역은 자연과는 대비되는 세계이지만 문명

리가 여성 인물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젠더 이분법의 남성 중심주의를 비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평가는 김동리의 문학에 항상 균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성서 이야기를 다룬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비록 심리적 불안이 개입되기는 하지만 마리아처럼 처녀 임신 같은 이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신성성의 담지자로 등장한다. 반대로 요셉이나 사반과 같은 남성 인물은 동정녀 마리아나 예수의 신성성에 대해 끝까지 인간주의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성적 회의와 고뇌를 거두지 않는다. 이들 소설에서 김동리는 신성성을 회의하는 남성 인물을 우호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모화나 을화의 여성 인물이 지닌 초월성을 긍정하는 시선과는 또 다른 지점에서 서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계열의 소설에 드러나는 이러한 균열을 짚어가는 작업은, 신성성을 둘러싼 젠더적 배치가 그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작가적 지향과 충돌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무속과 여성, 전통의 표상

흔히 「무녀도」에서의 모화와 육이의 인물 형상은 1차적으로 무속과 기독교, 더 나아가서는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의 축자적 표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은 여성과 관련을 가진다고 해석되어, 남성적·주지주의적·합리주의적 의식에 대항하여 이를 보상하려는 여성적 기능 즉 감성적·비합리주의적 경향으로 설명된다. 비합리주의적 존재로서의 여성은 ‘전통=동양’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남성 주체는 ‘근대=서양’에 대응하는, 젠더적 이분화의 도식이 완성된다. 그러나 이 도식적 대

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여성성의 세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Jane freedman, 『페미니즘』, 이박혜경 옮김, 이후, 2002, 30쪽)

립항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샤머니즘은 세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렵사회에서 발생한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종교라는 것이다. 샤머니즘의 의례자인 샤먼이 남성 사냥꾼이거나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⁷⁾ 또한 샤머니즘은 원시적인 종교에서 출발하여 그 역사가 매우 유구하다는 점에서 '전통'의 자리에 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특정 민족만의 고유한 표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샤머니즘이 문화권에 따라 전승 방식을 달리 하고 의례나 습속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며 이를 고유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공유하는 가치 지향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샤머니즘을 본질적으로 여성성과 결부된다고 단정하거나, 특정 민족만의 고유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녀도』는 이처럼 경계해야 할 이분법적 도식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 전략을 통해 문학적 권위를 확보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무속을 문학의 소재로 다루었다는 것은 “전인미답”의 새로운 경지인데다, 그것을 기독교와 극명한 대조 속에 배치시킴으로써 『무녀도』는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리를 마련하였다. 최근 전통 담론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무속이 ‘한국적인 것’이며 고유한 종교이자 문화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는 데는 일제 식민정책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으며, 더불어 이를 담론화하고 표상화시킨 문학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⁸⁾ 일제는 무자각적으로 전승되던 샤머니즘적인 신앙 형태에 ‘무속’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무속조사사업과 심전(心田)개발정책을 통해 무속을 폄하하여 억압하는

7) 이숙진, ““여성의 종교로서 무교” 담론 분석”, 『신학사상』, 한국신학연구소, 2001. 3, 211~212쪽 참조.

8) 박진숙,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샤머니즘과 ‘민족지’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006.6, 한국현대문학연구회, 41~42쪽.

한편으로, 일본 신사제도를 조선에 이식하기 위해 상호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유화정책을 펴기도 했다.⁹⁾ 그러나 제국주의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무속이 ‘한국적인 것’이라는 자각을 공고화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는 무속의 전유가 전통의 수호는 물론이고 민족주의적 저항의 한 발현으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특히 식민지 시기 일본인들에 의해 진행된 조선의 무속 연구는 무조(巫祖)가 여성이고, 대부분의 무당이 여성인데다 굿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조선의 무속이 여성적, 모성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하게 된다.¹⁰⁾ 여기서의 대립항은 물론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였다. 유교의 남성 가부장주의와 무속의 대립은 젠더적 대립이자 동시에 계급적 대립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김동리의 『무녀도』가 무속과의 대립항에 유교 대신 외래적인 기독교를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대립항에서 계급적인 요소는 소거되고 만다. 이제 무속은 ‘순수한’ 형태의 전통적, 민족적 자질로만 표상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모성적, 혹은 여성적인 것으로서의 젠더적 성격은 더욱 공고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1936년에 발표된 원작 『무녀도』(『중앙』, 1936.5)에는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무녀도』는 처음 발표된 이후 1947년과 1953년, 그리고 1963년에 걸쳐 세 번의 개작이 이루어지는데, 젠더적 이분법은 1947년 작품에서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젠더적 접근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

9) 김성례, 「한국무교 연구의 역사적 고찰」, 『한국 종교문화 연구 100년-역사적 성찰과 전망』, 청년사, 1999, 158쪽 참조.

10) 식민지 무속을 연구한 대표적인 일본 학자는 아카마스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이다. 이들의 저서 『조선무속의 연구』와 『조선무속의 현지 연구』 등은 모두 1930년대 초반 일본의 제국학사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의 결과이다. (이숙진, 앞의 글, 213~217쪽 참조.)

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원작의 맥락과 개작과정, 그리고 그 개작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와 욕망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작 『무녀도』에서는 무녀 모화와 기독교인 아들 옥이라는 대립 구도는 없으며, 무엇보다 무녀 모화의 행동이 중심 서사를 이루고 있고 옥이는 주변적 존재로 그려진다. 옥이는 어린 시절에 무당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멸시와 천대를 받다 가출해서 절에 기거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불법을 가르치던 선사를 살인한 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후 감형되어 모화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세상에 대한 울분과 한을 지닌 옥이는 무당인 모화에게 애증의 양가감정을 드러내지만, 내면으로는 무당으로서의 모화의 삶에 대한 연민을 품고 있다. 그러나 모화에게 옥이는 어둡고 기괴한 이미지로 인해 오히려 두려운 존재로 비춰진다. 모화는 당시 마을에 들어온 기독교의 ‘바람’을 귀신으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살인으로 ‘비인간’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옥이의 존재를 “땅 밑에 사는 검은 귀신의 화신”이라고 하며 귀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옥이에 대한 두려움은, 모화의 윤리적 죄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이 소설에 복선으로 깔린 근친상간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무관하지 않다. 무당의 자식으로 멸시받는 것을 피해 절에 양육을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폐인처럼 되어버린 아들에 대해 어머니로서의 죄의식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낭이가 임신을 하자 모화는 그것이 신령님에 의한 잉태라고 말하며 해산을 하는 날 낭이가 말문을 틀 것이라고 예언하기에 이른다.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근친상간의 문맥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낭이의 임신으로 인해 모화가 보여주는 엑스터시의 상태는 인간세계의 윤리와 금기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인간적 공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¹¹⁾ 그런 점에서 모화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에 지배받는 순박한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모화가 딸 낭이의 임신을 두고

꿈 속에서 신령님을 느껴 잉태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도, 그리고 결국 자신의 ‘신성’을 갖을 통해 타인들에게 가시적으로 증명하고 인정받고자 했던 것도, 어쩌면 윤리규범을 극단적으로 일탈한 것에 대한 공포, 혹은 죄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작 『무녀도』에서 그려진 무속과 기독교의 갈등은 후경(後景)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당인 모화가 ‘성’과 ‘속’의 경계에서 “실존을 건 ‘기투’”¹²⁾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을 이 소설의 문제적 전경(前景)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그런데 원작에서도 강렬하지는 않지만 무속에 대비되는 기독교가 등장하는데,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주로 치병 등의 이적과 결부시켜 언급됨으로써 샤머니즘과 유사하게 그려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것이 보여주는 이적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자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권위를 누렸던 무당 모화의 세계는 위협을 받게 된다. 모화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정신보다는 놀라운 주술적 능력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급기야 모화는 기독교인들을 “사람을 속이는 요술단”으로 규정하고 무시해 버린다. 샤머니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술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인정하면서도 특유의 인간 중심주의를 포함한다. 주술적 사고에 의하면 세계는 힘과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¹³⁾ 일반적으로 보편 종교는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무녀도』에 그려진 샤머니즘화된 기독교는 대중들에게 실제로 각인된 기독교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11) 엑스터시는 신들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엘리야데는 샤머니즘을 설명하는 핵심으로 엑스터시를 들고 있다. Mircea Eliade, 『샤머니즘』, 문상희 역, 삼성출판사, 1977, 22쪽 참조.

12) 김주현, 앞의 글, 94쪽.

13) Elisabeth Clement et al, 『철학사전』, 이정우 옮김, 동녘, 2001, 274쪽 참조.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서구의 표상이기는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성의 표상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기독교로 대표되는 종교적 세계관이야말로 근대가 벗어버리고자 했던 전형적인 굴레였으며, 신성성이야말로 근대적 개인이 회의하고 부정했던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서구적 근대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과학의 발달과 합리적 사고의 보편화로 인해 이적과 주술로 대표되는 신성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갖게 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무녀도』에 그려진 샤머니즘화된 기독교를 근대성의 이미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1947년 1차 개작의 핵심적 변모는 옥이가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와 어머니인 모화와 갈등을 빚는다는 부분이다. 여기서도 아들 옥이가 모화의 칼에 맞아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 모화 역시도 죽음을 맞는다. 대신 낭이가 성경을 갖고 떠난다는 결말 부분은 여운을 남긴다. 원작에서 윤리적 금기가 파괴되는 상황을, 엑스타시의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감으로써 극복하고자 했던 모화는, 이제 기독교라는 이질적인 세계의 침입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순교의 표상으로 확실하게 전회한다. 원작에서도 무당을 찾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성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모화의 위기의식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개작에서는 기독교인인 옥이가 모화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모화가 보이는 극단적인 행동은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정당방위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날 모화가 그 마을에 객귀 들린 사람이 있어 ‘물밥’을 내주고 돌아
오려니까, 옥이가

“어머니 어디 갔다 오우?”

하고 물었다.

“저 박장교 댁에 객귀를 물려주고 온다.”

육이는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그럼 어머니가 물리면 귀신이 물러 나가요?”

한다.

“물려나갔기 사람이 살아났지.”

모화는 별소리를 다 묻는다는 듯이 의젓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이 경주 고을 일원을 중심으로 수백 수천번의 굿을 하고, 수천 수만명의 병을 고쳐 왔지만 아직 한번도 자기의 하는 굿이나 주문에 대한 ‘신령님’의 감응에 대하여 의심한다든가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중략)

.....한참 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 육이는, 고개를 들어 그 어미의 얼굴을 똑 바로 바라보며,

“어머니, 그런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네다, 어머니 이것 보시오. 마태복음 제 구 장 삼십 이 절이옵시다, 저희가 나갈 때에 사귀 들러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다려 오매, 사귀가 쫓겨나니 병어리가 말하거늘.....”

그러나 이 때 벌써 모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에 언제나 채려 놓는 ‘신위장’ 앞에 가서

“신령님네, 신령님네,(생략)”¹⁴⁾

이 대목은 배타적인 두 종교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부분으로, 비극적인 파국이 예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모화에 의한 육이의 죽음이 기독교의 전파 과정에서 일어난 순교라고 본다면, 모화의 죽음 역시 토속적인 것이 외래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순교인 셈이다. 1963년 3차 개작은 1차 개작과 거의 유사하나, 결말에서 낭이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전과는 변화된 부분이다. 낭이에게 이적을 남김으로써, 신성성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과거 모화의 패배는 역전되는 것이다.

『무녀도』의 개작은 초기부터 김동리 문학의 특징으로 정착된 전통지향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는 전통담론의

14) 『무녀도』, 을유문화사, 1947, 37~39쪽.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동리는 여러 종교를 문학의 소재로 다루면서 어떤 작가보다도 초자연성으로서의 신성성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순수한’ 종교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다. 김동리는 무속 혹은 기독교로 환기되는 지정학적·문화적 차이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것이 민족주의적 알레고리로 해석되기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기독교를 내세운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과장과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해방 이후 ‘순수본격문학’을 내세우며 민족성, 세계성, 영구성을 강조했던 김동리는 ‘민족문학인 동시에 세계문학’이라는 기획 아래 ‘노벨상 프로젝트’라고 할 만한 장편 『을화』를 1978년에 완성한다.¹⁵⁾ 이 소설은 『무너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취하면서 한국적 전통의 대표로서 무속을 부각시키기 위해 바리데기 무가 등을 장황하게 삽입하고, 무당 을화의 신성성을 강화하기 위해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영매(靈媒)로서의 권능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무당으로서의 을화의 자부심을 부각시켜 무속의 인간 중심주의를 더욱 강조한다.

“(생략) 나는 이날 이때까지, 귀신이 붙어 죽게 된 사람, 살림을 망치게 된 사람을 고쳐왔다. 오구나 푸닥거리를 해서 귀신을 그 사람한테서 떨어지게 해주고, 저승으로 천도시켜 주는 기라. 너도 생각해 보라, 제 명에 못 죽은 불쌍한 귀신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이승 변두리에 빙빙 돌다가 산 사람한테 달라 붙을노? 내가 오구나 푸닥거리를 해서 그런 귀신을 사람한테서 떼내어 저승으로 보내주면,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귀신도 제대로 풀려가는 기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귀신에게 길을 열어 주어서 저승으로 훨훨 건너가게 해주는 게 얼마

15) 김윤식, 「전통지향성의 한계」,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97, 311쪽 참조.

나 신기하고 고마운 일일노? 나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저승으로 보내줬는지 다 꼽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본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 보라, 내 푸닥거리에서 귀신이 안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또, 내 오구에서 저승으로 천도 못시킨 귀신이 있는가고. 그런데 이 에미가 무슨 뚱딴짓을 했다말고? 어째서 너는 이 에미가 그렇게도 비위에 거슬리노? 나는 느거 야수락 하는 사람을 암만 좋게 봐 줘도, 우리 같은 신자(神子-무당을 가리킴)밖에 아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먼 타국에서 온 옛날 신자만 제일이고 살아있는 우리 나라 신자는 외면해야 되노 말이다”¹⁶⁾

을화는 무당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 영술에게 자신의 주술적 능력을 설파하는 한편, 기독교의 예수를 무당과 동급의 반열에 위치 짓는다. 그러나 인간 중심주의적인 무속의 신성성은 기독교의 그것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김동리는 각각의 내용성에 대한 천착보다는 ‘한국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대비함으로써 당위적 선택을 강요할 뿐이기 때문이다. 숭고한 정신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층 민중의 일상적 욕망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기반을 다졌던 무속의 의미를 이 소설은 체험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신화화된 여성 무당 을화의 주술적 행위만을 하나의 민속극처럼 펼쳐 보임으로써 동일성으로의 회귀를 강요할 뿐이다.

3. 기독교와 남성, 세계성의 전유

성서의 내용을 차용하여 기독교의 세계를 전면화한 김동리의 소설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 집중적으로 창작된다. 이 시기

16) 김동리, 『을화』, 문학사상사, 1978, 235~236쪽.

는 미군의 주둔과 함께 미국문화의 광범위한 수용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는 때이면서도, 전후의 허무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한국의 지식인들을 매혹했던 때이기도 하다. 김동리의 소설에서 무속과 대비적으로 그려진 기독교는 사머니즘적인 성격이 부각되고 배타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던 반면, 성서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들에서는 기독교를 성립시키는 핵심 서사들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계열의 소설 창작을 두고 김동리의 사상이 한국적, 신화적, 전설적, 신비적 경향에서 인류적, 보편적, 세계적 현실로 확대 발전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기실 기독교 소설의 창작에는 보다 중층적인 김동리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¹⁷⁾

성서 이야기를 다룬 최초의 작품인 『마리아의 회태』는 『사반의 십자가』와 동시기에 구상되어 발표된 작품으로,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의 임신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리아는 평소 신앙심이 깊고 신중한 여성이지만 처녀 임신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자 “주님의 뜻으로 수태한 것”이라는 사자의 전언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회의에 빠진다.

나귀 위에 앉은 마리아는 이렇게 화창한 봄 빛 속을 가면서도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된 일말의 불안과 회의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의 불안과 회의는 여호와의 능력이나 가브리엘의 고지(告知)를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나니라”한 가브리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의 어머니나 그녀의 할머니의 할머니나 또 그 윗대의 할머니부터 오늘의 모든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름지기 어떠한 여인이든지 모다 반드시 그 남편에 의하여 잉

17) 박상준은 김동리의 기독교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작가의 문학론-순수문학론, 제3휴머니즘론-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는 점과, 천상과 지상의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하는 태도를 문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상준,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19집,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06.6, 62~64쪽 참조.

태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도 엄연하고 너무도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불안과 회의는 여호와의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요 자기만이 유독 여인들과 다르다는 즉 모든 자연적인 범측을 뛰어넘어 있다는 그 초자연적 특수성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고독이요 불안이요 회의가 아닐 수 없었다.¹⁸⁾

“초자연적 특수성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고독”을 위안받기 위해 마리아는 예수가 넘어 임신한 이모를 찾아가고, 거기서 아내의 임신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을 의심한 이모부가 그 별로서 말을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에게 행해진 이적을 진심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자신이 체험한 이적을 요셉에게 설명하지만 요셉은 그 말을 믿지 못한다. 그는 마리아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몸져눕는가 하면, 마리아와 만남을 가졌을지 모르는 마을 남자들을 몰래 뒷조사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마리아가 다녀온 예루살렘을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서 마리아의 이모가 출산하였고 이어서 이모부의 말문이 트인 것을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꿈에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신으로 된 것’이라는 계시를 듣고서야 상황을 수긍하고 집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부분을 김동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둘 자갈이 많은 사마리아의 언덕 길 위에 외로운 그림자를 던지고 홀로 타박타박 걸어가는 요셉의 여윈 목은 석 달 전보다도 훨씬 가늘어졌다. 머리 위에 불길을 퍼붓는 듯한 뜨거운 햇살과 길 가에 이미 시들어진 엉겅퀴 꽃에서도 무슨 말을 물어 보고 싶은, 자기가 말을 걸어 묻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요셉아 그녀의 잉태함이 성신으로 된 것이니라”하고 해와 엉겅퀴가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대답할 것만 같은 그러한 복잡하고도 야릇한

18) 김동리, 『마리아의 회태』, 『청춘별곡』, 1955.2; 『문학사상』, 2001.3, 102~103쪽.

충동을 느끼며 그는 갈릴리 지경 너머로 발을 옮겨 놓았다.¹⁹⁾

요셉은 마리아를 비롯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신성한 이적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기꺼운 마음으로 수용하지는 못한다. 김동리는 요셉의 여위고 쓸쓸한 외형과 복잡한 내면을 황량한 풍경과 함께 서술함으로써, 신성성을 자신의 운명 속에서 인정해야하는 인간의 착잡함과 외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목공 요셉』에서는 그렇게 해서 낳은 예수를 아들로 받아들여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키우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로 인해 상처받는 요셉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두 살 때 가족과 함께 시내에 나갔던 예수는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는데, 며칠 동안 온 가족이 찾아 헤매다가 결국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게 된다. 애타는 가족들에게 예수는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몰랐습니까?”라고 태연하게 반문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은 마음의 병을 얻어 쇠약해져 가고, 목수가 되어 평범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는 요셉의 소망과는 달리 예수는 일도 결혼도 거부한 채 ‘아버지’의 부름을 쫓아 밖으로 나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상처와 배신감에 초점을 맞추느라 예수를 매우 무례하고 비정한 인물로 성격화시키고 있다.

예수는 그 투명하고 냉연한 목소리로,

“저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떠나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딱 짤라 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요셉의 두 눈에 불길이 번쩍 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손바닥은 어느덧 예수의 왼쪽 따귀를 철썩 소리가 나게 훔쳐 때리고 있었다.

19) 위의 책, 110~111쪽.

그러나 그와 동시에 터져 나온 심한 기침은 그로 하여금 더 입질이나 손질을 계속 할 수는 없게 하였다. 쿵쿵쿵쿵 쿵쿵쿵쿵 사뭇 기침에 꼬구라져 가는 요셉을 남겨두고, 예수는 먼저 같은 냉연한 목소리로,

“저 다녀오겠어요.”

하고 집을 나가 버렸다.

요셉의 가슴앓이는 그날 이후로 점점 심해졌다. 그리하여 그의 서른 네 살 나던 해, 그러니까 그날[성전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한 날]에서 두 해 뒤이다 - 그는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다.²⁰⁾

요셉의 인간적 시선에 초점을 맞춘 이 소설에서는, 신성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부름에 답하느라, 고통 속에서 자신을 아들로 키워준 눈에 보이는 아버지인 요셉을 냉정하게 떨쳐버리는 예수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마리아의 회태』와 더불어 이 소설에서는 신의 서사라 할 수 있는 성서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과감하게 그것에 가려 하찮게 여겨진 인간의 서사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리는 기독교의 성서를 문학 속에 차용함으로써 서구적 ‘보편성’을 전유하려는 욕망을 지니면서, 동시에 그것이 지니는 탈속의 경지가 일상의 인간에게 얼마나 비정하고 가혹한 것인가를 설파하고자 한다. 그는 신성성의 존재 의미를 여전히 회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소설에서는 마리아나 마리아의 이모처럼 여성 인물들의 경우 회의 속에서도 결국 초자연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반해, 요셉이나 이모부 등의 남성 인물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의심함으로써 벌을 받거나 상처를 입는다. 여성 인물들이 남성 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자연성을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여성 자신이 임신과 같은 이적의 직접적 경험자가 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신성성의 담지자로 전화하기

20) 김동리, 『목공 요셉』, 『실존무』, 인간사, 1958, 234~235쪽.

때문이다. 또한 여성 인물의 신성성 체험은 영적인 차원의 것이기보다는 ‘몸’으로 구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질성의 영역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²¹⁾ 따라서 이들 소설에서 김동리는 이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여성 인물보다 그것을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남성 인물의 내면에 주목함으로써, 성서와 기독교에 대해 일종의 합리주의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두 소설이 마리아의 처녀 임신과 관련하여 예수의 탄생과 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사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공통의 서사로 취하고 있다. 『사반의 십자가』는 사반의 영웅주의적 의식과 행동을 서사의 근간으로 하면서도 예수의 행적이나 가르침을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샤머니즘과 유사하게 치부되던 기독교에 대한 「무너도」류의 이해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혈맹단을 조직해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의 독립을 도모하던 사반은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존재에 기대감을 갖지만, 탈민족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이여, 그대의 기다림이 하늘 나라의 것이라면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 순간 그들은 똑똑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언지 형언할 수 없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것이 가슴에 쿡 찢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사반은 가슴 속이 사뭇 와들거리기 시작함을 깨달았다. 예수의 그 호수같이 맑고 푸른 눈이 하늘의 끝없음을 머금은 사반의 찢대 선 굵은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라빠여, 우리는 땅 위에 있나이다. 땅 위에 맺은 것을 땅에서 이루게

21) 기독교처럼 인격신적인 유일신 종교는 다신교적인 종교전통과는 달리 성(性)적인 것과 신(神)적인 것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신성(神性) 자체를 성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김동리가 성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예수를 서사의 중심에 세우지 않은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은선, 「한국 종교문화사 전개과정에서 본 한국 여성종교성 탐색」, 『한국사상사학』 제21집, 한국사상사학회, 2003.12, 572~573쪽 참조.

하여 주소서.”

사반의 본디 잠긴 듯한 굵은 목소리가 사뭇 떨리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은 사람은 흡사 떨리서 큰 짐승의 울음 소리를 듣는 듯 했던 것이다.

“사람이여 들으라. 사람이 땅 위에 있음은 오직 하늘에 맺기 위함이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맺으면 사람과 함께 멸망할 것이요, 사람과 땅이 더불어 맺으면 땅과 함께 또한 허망할 것이니라. 진실로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오직 하늘에 맺음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끝없음을 누릴지니라.”

예수의 물 흐르듯 한 투명한 목소리는 강한 향기처럼 그들의 오관에 스며드는 듯 했다. 그러나 끝까지 땅을 비켜서 하늘에 맺는단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반은, 맘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라빠여, 이스라엘은 하늘에 맺은 땅이요, 백성이외다. 이스라엘을 땅 위에 서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서글픈 얼굴로,

“사람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늘에 맺었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고 냉연히 일축해 버렸다.²²⁾

사반과 예수의 불화는 결국 지상적 구원이나 천상적 구원이나 하는 구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민족 해방의 메시아로 기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돈과 권세와 지위와 그 밖의 모든 땅 위의 영화를 거느린 채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축해 버린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 생명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설교가 현실주의자인 사반에게 이해될 리 만무하다. 이 소설에서 김동리는

22)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일신사, 1958, 84~85쪽.

예수의 신성성을 단지 이적의 수행을 통해 보여주기보다 그의 가르침과 고뇌의 ‘승고성’에 방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리가 이 소설에서 결론적으로 선택한 것은 역시 사반의 길이다. 로마의 억압 아래 현실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반은, 초월적 능력을 유대민족의 해방을 위해 사용해 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맥없이 죽어 가면서도 ‘낙원’을 말하는 예수를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

“그대에게 이르노니 오늘로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사반에게도 들릴 만 했다. 그와 동시에 사반은 화가 버럭 치밀었다. 제 자신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죽음에 들어서 남을 이끄느냐 싶었던 것이다.

“비겁한 자여, 너는 유대나라와 너의 생명을 버리고서 오히려 낙원을 찾고 있느냐?”

하고 예수를 꾸짖었다.²³⁾

요컨대, 사반이 추구하는 지상적 가치란 민족 공동체를 근거로 형성되는 현세적 삶이다. 김동리에게 있어 지상의 존재로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 가치의 도달점은 결국 민족이었던 셈이다.

한편 예수의 신성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분 서술되었던 『사반의 십자가』는 예수의 부활을 다루는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합리주의적 시선을 개입시킴으로써 신성성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합리주의적 해석은 1958년의 『사반의 십자가』 원작본에서도 발견되지만, 단편 『부활』을 거쳐 1982년의 『사반의 십자가』 개작본에 이르면서 구체적 정황 제시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사반의 십자가』 원작에서는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언급하면서 그 시신이

23) 위의 책, 364~365쪽.

어디로, 누구에 의해서, 왜 사라졌는지는 모른다고 서술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상황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작가의 논평적 목소리가 개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리는 예수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도 믿을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사실상 오늘에도 살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희미하게 ‘부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아무리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무덤에서 돌을 밀치고 나간 예수의 육신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완고한 시(詩)이다”라고 못을 박는다.²⁴⁾ 부활에 대한 이러한 모호한 서술은 단편 『부활』과 개작본에 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가사(假死)상태로 묘지에 들어갔다가 후에 기력을 회복해 깨어난다는 설정으로 대체, 보완된다.²⁵⁾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적 신성성을 성립시키는 근원 상황이라고 볼 때, 부활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초월성을 근원에서 부정하는 것과 같다. 김동리는 치병과 같은 예수의 다른 이적은 거부감 없이 수용하면서도 요셉의 시선을 통해 ‘처녀 임신’을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나, 예수의 부활을 가사 상태에서 의 깨어남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그 초월성의 준거를 사머니즘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특히 사반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영적인 지주인 하닷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의미있는 설정이다.²⁶⁾ 하닷은 범신론자에 가까운 샤먼으로 민족주의적 관념을 부정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예수가 지니는 신성성의

24) 위의 책, 369쪽.

25) 김동리 소설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루는 방식은 이동하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논증되어 있다. 이동하, 「《사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룬 방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1집,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02.6.

26) 김동리는 하닷이 사머니즘의 변형으로 형상화한 인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동리, 『사머니즘과 불교』, 『문학사상』 창간호, 1972, 127쪽.

영역과 대비를 이룬다. 김동리는 샤머니즘의 눈높이에서 기독교를 바라봄으로써 성령 잉태나 부활과 같은 ‘낮선’ 신성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지상의 민족을 초월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현실 바깥의 천상계에나 통용되는 진리로밖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다룬 소설에서는 요셉이나 사반이 서사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적 시선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내면적 고뇌에 시달리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감싸는 마리아는 배려가 부족하고 무신경한 여성이다. 한편 『사반의 십자가』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인 실바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둘 다 사반을 사랑하는 여성들로, 사반의 영웅적 행위를 보조하는 차원으로 역할이 제한된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후에 사반과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근친상간의 죄의식으로 고통받게 되는데, 예수에 의해 영혼을 구원받고부터는 성격의 활력을 상실하고 인물의 역할이 더욱 부차화된다. 김동리는 기독교 소설에서도 분명 여성을 초월적이고 신성한 힘에 쉽게 친연성을 느끼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성 인물과 대비하여 남성 주인공들은 합리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 시선을 견지하는 인물로 그려낸다. 요컨대 기독교의 성서를 다룬 소설들에서는 서구적 보편성 혹은 기독교적 세계성을 전유한다는 표면적인 서사 전략 아래, 이면에서는 철저히 민족주의적인 지향을 관철시키고 있다. 결국 『을화』가 전통의 재현을 통한 세계성에의 지향이라면, 『사반의 십자가』는 보편성 혹은 세계성의 전유 속에 민족주의적인 지향을 견지하는 역전된 사례라 하겠다.

4. 민족이라는 성소(聖所)

위에서 살펴본 두 계열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김동리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무속 계열의 소설에서는 이성주의에 반하는 초월성을 지닌 전통적 무속을, 그리고 그것을 체현하는 무당으로서의 여성 인물에 더 우호적인 반면, 기독교 계열의 소설에서는 이적과 신성성의 세계를 회의하는 남성 주체, 즉 인간 중심의 합리주의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 신성성과 젠더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매끄럽게 해명되지 않는 균열이 존재한다. 이 균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답을 제시하자면, 이러한 의식의 균열은 민족, 혹은 국가라는 차원의 규범에 김동리의 의식이 강하게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범신론적인 자연귀의 사상과 함께 엑스터시가 충만한 초자연적인 주술성이 공존하는 무속의 세계는, 그것이 전통이고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옹호된다. 김동리는 때로 그것을 시대착오적이고 퇴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재현하면서도, 심정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옹호의 대상으로 신화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기독교는 보편 종교, 혹은 세계 종교라는 권위 아래 신성성의 세례를 펼치지만, 그것이 지닌 외래성과 배타성이 전통을 잠식해 가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견제의 대상이 된다. 어떤 면에서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행사한 배타성을 김동리는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르겠다.

무속과 기독교를 다룬 김동리의 소설을 대상으로 신성성의 문제와 젠더적 배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는 균열을 일으키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종교적 소재를 서사의 대상으로 선택했던 김동리의 소설 가운데 이 두 계열에 집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소설에서 여러 가지 이분법적 대립항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유용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재에서는 물론이고 주제의 차원에서 종교의 문제에 집착했던 김동리의 소설을 살펴본 결과, 의외로 그의 문제의식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종교 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적 경계 속에서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에 대한 인식,

혹은 무한 욕망의 굴레에 내던져진 황폐한 인간적 삶에의 회의 등과 같은 실존적 문제야말로 ‘신성성’으로서의 종교와 대면하게 되는 ‘순수한’ 종교적 문제의식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종교의 차원을 전면화하고 있는 김동리의 소설은 민족의 관념이 압도적인 당위로 작동함으로써, 인간적 실존의 문제를 부차화하거나 은폐시키고 있다. 불교를 소재로 한 『등신불』의 경우도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소신공양이라는 희생양적 순교의식으로 귀결됨으로써 일상성 속에서 개별 인간이 갈구하는 ‘신성성’의 세계와는 역시 거리가 있다. 더구나 여성 무당이 구현하는 무속의 세계를 ‘한국적인 것’의 토속적 원형으로 기획했던 김동리의 욕망이, ‘세계문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욕망과 결합함으로써 사반이나 을화의 표상은 더욱 ‘순수하지’ 않은 형상으로 덧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단일하게 설명되지 않는 젠더적 배치 또한 이러한 욕망의 뒤엉킴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결과라 하겠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동리, 『무녀도』, 『중앙』, 1936.5.
 _____, 『무녀도』, 을유문화사, 1947.
 _____, 『마리아의 회태』, 『청춘별곡』, 1955.2 (『문학사상』, 2001.3)
 _____, 『목공 요셉』, 『실존무』, 인간사, 1958.
 _____, 『사반의 십자가』, 일신사, 1958.
 _____, 『부활-예수 되살아나심에 대한 아리마대 요셉의 수기』, 『사상계』, 1962.11.
 _____, 『을화』, 문학사상사, 1978.
 _____, 『사반의 십자가』, 홍성사, 1982.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 '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1940.5.
 김동리, 『문학과 인간』, 자유문화사, 1948.
 김동리, 『사마니즘과 불교』, 『문학사상』 창간호, 1972.

2) 단행본

- 김성례, 『한국무교 연구의 역사적 고찰』, 『한국 종교문화 연구 100년-역사적 성찰과 전망』, 청년사, 1999.
 김윤식, 『전통지향성의 한계』,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97.
 김철, 『김동리와 파시즘』, 『국문학을 넘어서』, 국학자료원, 2000.
 이해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한수영, 『순수문학론에서의 미적 자율성과 반근대의 논리』,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Elisabeth Clement et al, 『철학사전』, 이정우 옮김, 동녘, 2001.
 Jane Freedman, 『페미니즘』, 이박혜경 옮김, 이후, 2002.
 Richard Dawkins, 『만들어진 신』, 이한음 옮김, 김영사, 2007.
 Mircea Eliade, 『사마니즘』, 문상희 역음, 삼성출판사, 1977.

3) 논문

- 김주현, 『1960년대 소설의 전통 인식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6.
- 박상준,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김동인의 <문명>등과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9집,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06.6, 47~86쪽.
- 박진숙,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샤머니즘과 ‘민족지’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19집, 한국문학연구회2006.6, 19~46쪽.
- 신춘자, 『기독교의 구원과 <사반의 십자가>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6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00, 105~125쪽.
- 이동하, 『《사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룬 방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1집, 한국문학연구회, 2002.6, 11~47쪽.
- 이숙진, 『“여성의 종교로서 무교” 답론 분석』, 『신학사상』, 한국신학연구소, 2001.3, 210~239쪽.
- 이은선, 『한국 종교문화사 전개과정에서 본 한국 여성종교성 탐색』, 『한국사상사학』 21집, 한국사상사학회, 2003, 549~583쪽.
- 진정석, 『일제 말기 김동리 문학의 낭만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외국문학』, 1993 여름호, 한국사상사학회, 150~177쪽.

Abstract

Sacredness, Gender, and Nation

Seo, Eun-ju

This essay is about the relation of sacredness and gender in Kim Dongli's novels shown narratives of religious theme. It is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relation of sacredness and gender is differently realized according as religious theme touched in his novels is about shamanism or Christianity. Kim shows a amicable attitude of shamanistic transcendence against rationalism and female characters embodying it in novels of shamanistic theme, on the other hand he shows a positive attitude of anthropocentric rationalism, through male characters of being incredulous about miracle and sacredness in novels of Christian theme. Such his dual standpoint is seemed to appear because nation or nation-state works as a superordinate norm in his conscious world. Shamanistic world which supernatural incantation coexists with pantheistic thought of returning nature, is affirmed as the sacred because it is regarded as the Korean and tradi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pouring christening of sacredness upon authority as 'world religion', Christianity is regarded as the threatening because its foreignness and exclusiveness may be making invasion into Korean tradition. It can be said in this point that nation is a religion itself for him.

Key words : religion, sacredness, gender, shamanism, Christianity, nation, tradition

■ 본 논문은 5월 3일에 접수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